

중공의 증오선전의 희생품이 되지 말자



2011 년 2 월 12 일 점심 12 시경에 미국뉴욕에서 퍼레이드 시위행진을 거행할때 한 화교청년이 관중속에서 뛰쳐나와 파룬궁대오앞으로 달려들어 현수막을 잡아당기고 가름대를 부셔버렸다. 이 광경을 목격한 세 경찰이 즉시 그를 제지시키고 수갑을 채워 경찰차로 퍼레이드 109 분국으로 압송하였다. (윗 사진) 이 사건에 대해 뉴욕 퍼레이드 109 분국 경찰은 《절대 용서할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화교청년이 중공의 수매와 지시를 받았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 행위는 중공의 박해를 위해 공범자 작용을 했으며 중공의 장기적인 증오선전을 하는 피해자로 되게 했다.

이 화교청년의 공격행위는 파룬궁의 현수막

이지만 실제상 파룬궁의 리념과 신앙을 건준것이다. 더 확실하게 말한다면 이 행위는 종교를 증오하는 범죄범주에 속한다.

“증오범죄”는 사회에 대한 위해가 몹시 크며 위험하다. 그러므로 세 경찰은 즉시 그를 땅에 엎어놓고 수갑을 채웠다.

파룬궁은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앙단체일뿐 아니라 “찐싼런”의 세상의 보편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파룬궁학원들이 오래동안 평화적으로 박해를 반대했으므로 미국사회의 보편적인 존경과 인정을 받았다. 박해를 감행하여 마음속의 두려움을 느낀 중공은 해외 령사관을 리용하고 매체를 통해 거짓말과 증오선전을 산포하고 심지어 폭도들을 매수하여 파룬궁을 소란하고 습격했으며 파룬궁학원들의 합법적인 활동을 공격했다.

중공을 위해 진력해서는 좋은 결과가 없다. 2001 년 9 월 1 일, 시카고 중공령사관앞에서 파룬궁을 구타한 정적명과 공옥주는 형사안건에서 죄가 있다고 판결했다.

2001 년 7 월 13 일, 시카고 중국령사관앞에서 파룬궁을 모독한 퇴국명은 1 년후 병으로 급사했다. 중공의 박해를 도와나섰거나 중공의 위해 증오범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해쳤고 남을 해쳤다. 이들은 속히 자신이 범한 죄를 뉘우치고 중공의 증오선전의 희생품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

덴마크 학교수업에서 파룬궁을 전수



2011 년 2 월 9 일, 덴마크 헤르닝시 해메는 베스코학교에서 파룬궁학원을 요청하여 수업에서 파룬궁을 전수했다.

강의를 들은 학생과 선생님들은, 파룬궁은 “찐싼런”원칙에 따라 심성을 제고하여 좋은 사람이 되게 하며 수련인으로 하여금 신체를 건강히 하고 도덕을 승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저마다 파룬궁공법을 배웠다.

추석날밤에 나붙은 진상표어

2011 년 2 월 2 일 추석날 밤에 호북성 모시에 채색파룬궁진상표어가 나붙었다. 파룬궁학원들은 매서운 추위도 마



다하고 자신의 생명위험을 무릅쓰고 “파룬따파가 좋다”는 진상을 세인들에게 전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상을 알고 복 많이 받을 것을 바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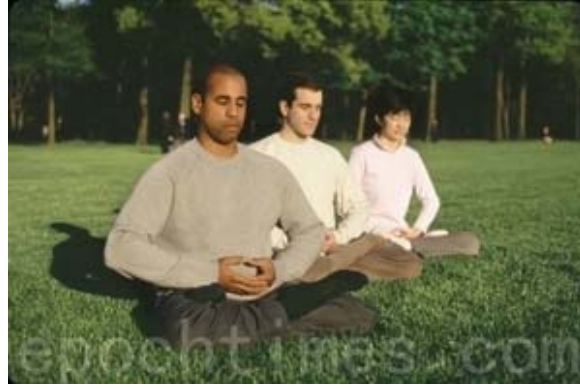


가부좌는 대뇌구조를 개변할수 있다

미국 메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실행한 연구에 의하면 가부좌는 대뇌구조를 개변할수 있다고 긍정했다. 이는 처음으로 과학자들이 연구실험에서 증명한 인체과학의 새로운 발견이다.

연구인원들이 보고에서,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8 주 동안의 선종수련에서 가부좌는 기억, 자아감각, 동정, 압력감과 상관되는 대뇌구역에 측정할수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실험에 참가한 16 명에 대해 실험을 시작하기 전 2 주일과 실험을 시작한후의 대뇌구조를 조사해본 결과 매일 평균 27 분동안 가부좌한 사람들의 념력(念力)은 이전에 비해 현저한 개변이 있었다.



연구인원들은 뇌조사 도형에서 해마의 회질밀도가 증가되었음을 발견했다. 해마는 이미 알고 있는 학습과 기억을 주관하는 중요한 부위로서 사람의 자아의식, 동정심, 반성의식과 상관되는 대뇌구조이다. 회질은 신경세포를 망라한 일종 대뇌조직이다. 연구인원들은 가부좌한

사람들은 압력이 경감되고 행인핵(杏仁核)의 회질이 감소되었음을 발견했다. 행인핵은 근심과 압력이 생기는 뇌조직구조이다.

선종수련 올방자하지 않은 사람들의 뇌에는 이러한 변화가 없었다.

메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연구결과는 이미 올해 1 월 30 일에 발행한 정신병학연구 “신경영상 잡지”에 발표되었다.

2011 년 박해로 세상 뜬 연변파룬궁학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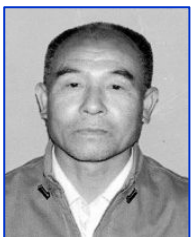
통정시파룬궁학원 채복신



통정시세무국의 우수한 공무원인 채복신(蔡福臣)은(왼쪽 사진) 2004 년 5 월 26 일에 연길시이란 파출소 악경들에게 납치되어 박해를 받다가 2005 년에 불법적으로 10 년 판결을 받고 길림성공주령 감옥에 감금되었다.

채복신은 여러번 “작은 방”에 갇혀 “전화”박해를 받았다. 악경들의 지시를 받은 형사범인들은 밤낮으로 그를 감시했으며 강박적으로 고된 로동을 시켰다. 감옥에서 5 년동안 잔혹한 박해와 시달림을 받은 채복신은 2010 년 9 월 15 일에 원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다.

도문시파룬궁학원 장경군



전이되어 계속 박해를 받은지 7 일도 안되는 사이에 심한 흑형으로 세상을 떠났다.

도문시석현진파룬궁학원 장경군(张庆军)은(왼쪽 사진) 2010 년 9 월 10 일에 악경들에게 납치되어 세뇌반에 갇혀 “전화”박해를 받았고 9 월 19 일에 도문시안산 구류소로 압송되어 박해를 받다가 10 월 22 일에 구태로교소로

연길시파룬궁학원 신연준



군대에서 전업해온 간부 신연준(辛延俊)은(왼쪽 사진) 선후로 4 차례 납치되어 박해를 받았다. 신연준은 2002 년에 불법적으로 7 년 판결을 받고 길림감옥에서 모진 흑형을 받다가, 2005 년에 생명이 위

연길시파룬궁학원 단복금, 양복진



급하게 되자 감옥에서 석방되어 집으로 온후 5 년 동안 모진 병마에 시달리다가 2010 년 5 월 27 일에 원한을 품은채 세상을 떠났다.

2010 년 1 월 29 일 오후, 길림성 “610”악경과 연길시국보대대 악경들은 서로 결탁하여 연길시파룬궁학원 단복금(殷凤琴)(왼쪽 사진)을 납치하여 세뇌반에 보내려 시도했다. 악경들에게 순응하지 않은 단복금은 갑자기 자기집 5 층베란다에서 떨어져 불행히 세상을 떠났다. 양복진(杨福进)은(오른쪽 사진) 그의 안해 단복금이 세상 뜬후 심한 정신타격을 받고 2010 년 6 월에 세상을 떠났다.